

아동의 개인적 변인, 어머니 표상 및 또래 표상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 명 진¹⁾

한빛 복지관

김 광 응²⁾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조 유 진³⁾

남북문화통합교육원

본 연구는 아동의 개인적 변인, 어머니 표상 및 또래 표상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및 인천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어머니 표상, 또래 표상, 사회적 능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 중 최종 54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표상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또래 표상 또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개인변인의 영향력을 제거하고서도 어머니 표상 및 또래 표상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중요한 예측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주요어 : 어머니 표상, 또래 표상, 사회적 능력

1) 한빛 복지관 놀이치료사

2)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3) 교신저자 : 국립 상주대 강사, 남북문화통합교육원 청소년 상담교사 (E-mail : c-joshua@hanmail.net)

I. 서론

인간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고 성장하면서 보다 확장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출생 초기 부모와의 관계형성을 기초로 아동기에 이르면 또래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발달시키며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표상을 발달시키게 된다. 관계에 대한 아동의 표상은 개인적인 상호작용 양식을 예견 가능케 하며(김영아, 2000)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타인에 대한 표상이 대인관계의 결과이면서 또 다른 관계의 지표 역할을 한다고 볼 때, 어머니표상과 또래표상은 현재와 미래의 대인관계와 사회적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표상은 애착이론, 사회정보처리이론, 대상관계이론 등에서 설명되고 있다. 이들 이론에서는 아동의 표상을 사회적 행동과 적응을 유도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 있다(나유미, 2001).

애착이론가들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최초로 타인과 맺는 대표적 사회적 관계를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로 보고, 이 관계의 질이 유아의 타인에 대한 표상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민감하고 지지적인 반응을 얻지 못한 아동은 자신에 대해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부모에 대해서는 믿지 못할 존재로 그 실행모델을 발달시키며, 사회적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기대를 형성하게 된다고 본다. 이렇게 부모와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내적 실행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다른 사회적 관계 속으로 전이되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고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

며 자신의 반응을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Ainsworth, 1989; Bowlby, 1973).

사회정보처리이론은 표상을 개인이 특정 사회적 상황을 접할 때 그 상황에 대한 해석과 그에 대해 반응을 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Crick & Dodge, 1994). 새로운 상황에서 정보를 처리할 때 아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 즉 아동은 과거 경험을 기억 속에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며 이 데이터베이스는 곧 사회적 세계에 대한 표상이 되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사회적 단서를 해석하고 이에 대해 반응한다. 예를 들어 또래로부터 거부를 당해온 아동은 새로운 다른 또래의 중립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적대적으로 해석하고 그들에 대해 공격적이거나 회피적으로 반응하기 쉽다고 본다(Burks, Dodge, Price, & Laird, 1999). 반면, 따뜻하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동은 사회적 세계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하여 친사회적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하였다.

대상관계이론에서는 아동과 양육자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이 표상을 형성하는 과정과 표상의 특질에 따라 인간의 성격구조와 대인관계가 발달하는 과정을 설명한다(심윤정, 2001). 대상관계이론에서 대상이란 실제의 사람보다도 내면화된 사람의 표상을 의미한다(Cashdan, 1988). 아기는 엄마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 자신과 엄마에 대한 형상을 내면화하고, 이렇게 내면화된 내적 표상은 아이가 자라면서 대인관계를 경험할 때 어떤 틀 또는 여과기로 작용하여 미래의 대인관계 패턴을 형성한다(김병석, 1999).

이상 언급한 이론적 관점들은 가족과 또래에 의해 형성된 표상이 심리내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형성되면서 아동의 대인관계 및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또래 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능력에 어머니 표상이나 또래 표상이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최근의 연구들(나유미, 2001; 이기영, 고윤희, 최성열, 2004; 이영환, 이진숙, 2001; 정명진, 2006)에 의해서도 지지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의 개인 변인들을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적 능력에 대한 주요 예측변인으로 어머니 표상이나 또래 표상을 보고함으로써 이러한 결과가 과연 표상의 순수한 영향인지 아니면 아동 개인변인의 차이에 의한 결과인지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닌다.

한편 사회적 능력에 대한 개념은 아동의 사회적 특성의 포괄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개념화하고 특수화하는 유용한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인숙, 2004). 사회적 능력은 발달에 있어서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이다(전경아, 이진숙, 2003).

사회적 능력에 대한 정의는 광범위한 사회적 차원을 포괄한 용어로 그 개념이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반영하므로(최송미, 2003)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어 공통적인 정의는 어렵지만(Mathur & Rutherford, 1996) 대체로 그 발달에 맞게 환경과 적절히 상호작용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며,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적절하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홍기묵, 2005).

이와 같은 사회적 능력은 가족, 교사, 또래와 같은 사회화 대행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게 되는데(임정하, 1996) 먼저, 유아의 사회적 환경 체계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

한 사회관계망인 가족은 생의 첫 5, 6년 동안 주요한 사회적 발달을 도와주는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부모나 형제자매와 같은 관계의 경험 속에서 발달한다(정영숙, 1992).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감하고 일관되며 신뢰롭고 애정적일수록, 형제자매로부터 높은 사회적 지지를 경험할수록(최용주, 1993),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온정적이고 친밀하다고 지각할수록(전경란, 1990),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능력이 부모나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과의 온정적인 정서적 애착 경험을 통해 발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과의 정서적 애착, 신뢰감 형성이 이후 타인과의 안정적인 유대를 형성하게 되며 원만한 사회적 관계의 기초가 됨을 의미한다.

또한 유아는 교육기관에 들어가면서 점차 가족이외의 성인과 또래와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자신의 세계를 넓혀나간다. 유아는 자신과는 다른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킨다. 유치원에서의 사회적 능력과 또래수용은 초등학교, 그 이후까지 유지되면서 모든 관계의 기초를 제공한다(임경례, 2003).

이를 통해 볼 때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가족과 또래에 의해 형성된 표상이 심리내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형성된 가운데 발달하는 것으로 어머니 표상과 또래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어떻게 기능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사회적 능력에 대한 순수한 심리 내적 변인인 표상의 영향력만을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예를 들면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주는 아동의 개인적 변인으로서 성차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Cohn(1990), 이병림(1987)의 연구와

Ford (1982)의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반면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도 제시되었다(김영지, 1994). 형제 유무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살펴보면 박범실(1986)의 연구에서는 형제아의 사회적 능력이 더 높았으나 Falbo와 Polit(1987)의 연구에서는 외동이의 활동성, 지배성, 사려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김숙경(1989)의 연구에서는 형제자매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과 연령 등에 따른 아동의 표상의 다양성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 개인적 변인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일치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어머니 표상은 여아의 경우 남아보다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거나(정명진, 2006), 어머니에 대한 여아의 애착 표상이 남아의 표상보다 안정적인 점(Page & Bretherton, 2001), 또한 남아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 표상이 더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결과(유영미 등, 2001) 등이 그 구체적 예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아동의 어머니 및 또래 표상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성이나 연령, 형제유무 등과 같은 아동 개인적 변인의 영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 및 또래표상의 영향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아동 개인적 변인의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사회적 능력에 대한 순수한 심리 내적 변인인 표상의 영향력만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된 연구로서 먼저, 어머니 표상과 또래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사회적 능력에 대한 아동 개인적 변인의 영향과 이를 제거하고서도 어머니 및 또래 표상이 사회적 능력에 대한 예측변인으로서 유의한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 표상과 또래 표상의 영향력을 명확히 규명해 봄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어머니 교육이나 상담 혹은 바람직한 양육환경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하였고, 또한 긍정적 또래 표상을 발달시키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위의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또래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동의 개인적 변인, 어머니 표상 및 또래 표상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인천 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3곳을 임의 표집하여 현재 재학중인 4,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을 4, 5, 6학년으로 선택한 이유는 유아기보다 학령기 동안에 아동의 사회적 기능이 부모의 양육과 연관성이 높다는(Fabes et al.,

1994)는 연구를 토대로 하여 중기 아동기가 인지적으로 안정되면서 내적 표상이 가능해지는 시기(김영아, 2000)이기 때문이다. 질문지는 총 600부를 배부하여 581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에서 무응답과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547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어머니 표상 측정 도구

Rudolph, Hammen 및 Burge(1992)에 의해 개발된 아동용 대인도식 질문지-어머니용(Children's Interpersonal Schema Questionnaire-mother)을 김영아(2000)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여, 아동과 어머니와의 전형적인 상호작용 장면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그들의 어머니가 반응하리라고 가장 기대되는 반응양식을 선택하게 되어있다. 어머니의 반응양식은 (1)강압적이고 비판적이며 적대적인(hostile) (2)무관심하고 회피적이며 철회된(indifferent) (3)보살피며 감싸주는(caring)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총 15문항으로 3가지 반응유형은 각각 1, 2, 3점의 점수를 받게 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에 대한 표상이 긍정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문항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사용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통해 나타난 어머니 표상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9였다.

또래 표상 측정 도구

Rudolph 등(1992)의 아동용 대인도식 질문지-또래용(Children's Interpersonal Schema Questionnaire-peer)으로 자신에 대한 또래의 행동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기대척도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가상적인 상호작용 장면을 제시하고 또래가 반응하리라고 가장 기대되는 반응양식을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또래의 반응양식은 (1)강압적이고 비판적이며 적대적인(hostile) (2)무관심하고 회피적이며 철회된(indifferent) (3)보살피며 감싸주는(caring)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총 15문항으로 3가지 반응 유형에 대해 각각 1, 2, 3점의 점수를 줌으로써 척도에 대한 해석은 총점이 높을수록 또래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문항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사용하였고 또래 표상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1로 나타났다.

사회적 능력 측정 도구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금옥(1998)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사회적 능력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거의 안 그렇다:1점~매우 그렇다:5점)이며, 사교성,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의 5개 하위요인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능력 척도에 대한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7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5년 9월 12일부터 9월 24일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자가 사전에 협조를 구한 서울지역 초등학교 2곳과 인천지역 초등학교 1곳을 직접 방문하여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총 6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 실시 전 연구자가 담임교사에게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547)*

변인	구분	N(%)
아동의 학년	4학년	171(31.3)
	5학년	188(34.4)
	6학년	184(33.7)
아동의 성별	남	267(48.8)
	여	280(51.2)
형제수	없음	44(8.5)
	1명	377(72.9)
	2명	90(17.4)
	3명 이상	6(1.2)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14(2.6)
	고졸	321(60.0)
	전문대졸, 대중퇴	58(10.8)
	대졸	135(25.2)
	대학원졸 이상	6(1.1)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5(.9)
	고졸	218(40.7)
	전문대졸, 대중퇴	71(13.3)
	대졸	211(39.4)
	대학원졸 이상	31(5.8)
어머니 직업	단순노동	9(1.7)
	반숙련직	28(5.2)
	숙련직	20(3.8)
	판매직	74(13.9)
	사무직	57(10.7)
	관리직	16(3.0)
	전문직	12(2.3)
	주부	318(59.5)

질문지의 내용과 응답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설명을 들은 교사가 아동에게 질문지를 나눠주고 작성하도록 한 후 다음날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표 1. 계 속

변인	구분	N(%)
아버지 직업	단순노동	13(2.5)
	반숙련직	7(1.3)
	숙련직	80(15.1)
	판매직	156(29.3)
	사무직	103(19.5)
	관리직	139(26.3)
	전문직	24(4.5)
월평균 소득	무직	6(1.1)
	100만원 미만	13(2.4)
	100~199만원	63(11.8)
	200~299만원	155(29.1)
	300~399만원	150(28.2)
	400~499만원	89(16.7)
	500~599만원	32(6.0)
	600만원 이상	30(5.6)

* 무응답에 의해 변인마다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1의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문제 2의 또래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연구문제 3에서 아동의 개인적 변인과 어머니 표상 및 또래 표상이 사회적 능

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아동의 개인적 변인을 1단계에 투입하고, 2단계에 어머니 표상을, 3단계에 또래 표상을 투입하여 각 단계별 증분 설명량의 유의성 검증을 통해 어머니 표상 및 또래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이 유의한지를 살펴보았다.

III. 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 1, 2, 3의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의 주요변수인 어머니 표상, 또래 표상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연구대상 아동들은 전체적으로 어머니 표상과 또래 표상 모두 강압적·비관적·적대적(1점) 혹은 무관심·회피적·철회된(2점) 표상보다는 보살피며 감싸주는 긍정적 표상(3점)에 가까운 점수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동들은 어머니에 대한 표상보다는 또래 친구들에 대한 표상이 더욱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자기보고식에 의한 사회적 능력 지각에 대해서도 아동들은 대체로 자신의 사회적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어머니 표상, 또래 표상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N=547)

변인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어머니 표상	2.58(.30)	1.36	3.00
또래 표상	2.79(.28)	1.47	3.00
사회적 능력	3.29(.67)	1.32	4.90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어머니 표상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변인이었다($b=.64, p<.001$). 이는 아동이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이고 좋은 표상을 가지고 있을 때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때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 표상의 전체 설명량은 8%로 나타났다.

또래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또래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또래 표상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변인이었다($b=1.29, p<.001$). 이는 아동이 또래에 대해

표 3.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순회귀분석 (N=547)

준거변인	예측변인	b	r^2	F
사회적 능력	어머니 표상	.64***	.08	46.66***

*** $p<.001$

표 4. 또래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순회귀분석 (N=547)

준거변인	예측변인	b	r^2	F
사회적 능력	또래 표상	1.29***	.24	176.76***

*** $p<.001$

친밀하고 긍정적인 표상을 지니고 있을 때 이것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도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사회적 능력에 대한 또래 표상의 전체 설명량은 24%로 나타나 단일요인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예측하는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개인적 변인, 어머니 표상 및 또래 표상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개인적 변인, 어머니 표상 및 또래 표상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투입되는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절차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은 변인 간 단순상관이 .90이상이면 의심할 수 있는데(이종구, 2001), 본 연구에서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독립변인 간 상관이 .5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만큼 상관이 높지 않았다. 이는 위계적 회귀분석 시 본 연구에서 상정한 독립변인들이 모두 투입되는 데 있어 무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문제 3을 알아보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 절차는 어머니 표상의 독립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아동의 개인적 변인들을 1단계에 투입하고, 다음 2단계에 어머니 표상을 투입하여 증분설명량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또래 표상의 독립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아동의 개인적 변인들을 1단계에, 어머니 표상을 2단계에 투입하였고 마지

표 5. 아동의 개인적 변인, 어머니 표상 및 또래 표상의 상관분석 (N=547)

변인	1	2	3	4	5	6	7	8
1	-							
2	.02	-						
3	-.01	-.07	-					
4	-.07	.02	-.03	-				
5	-.04	-.03	-.04	.02	-			
6	-.01	-.07	.02	-.01	.55	-		
7	-.09	-.00	.05	.10	.24	.26	-	
8	-.03	-.22	-.11	-.03	.01	-.02	.03	-
9	-.16	-.03	-.08	.04	.03	-.01	.02	.45

주. 1: 성별(남: 1, 여: 0), 2: 학년, 3: 형제유무(있음: 1, 없음: 0), 4: 모의 직업유무(있음: 1, 없음: 0), 5: 어머니학력(대학교 이상: 1, 고졸 이하: 0), 6: 아버지학력(대학교 이상: 1, 고졸 이하: 0), 7: 수입, 8: 어머니 표상, 9: 또래표상. 진하게 표시된 수치가 $p < .05$ 이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표시한 것임.

막 3단계에 또래 표상을 투입하여 증분설명량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상과 같은 절차를 통해 분석된 결과는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아동 개인변인의 영향을 제거하고서도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어머니 표상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는 표 6의 1, 2단계의 결과에 제시된 것과 같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 투입된 아동의 개인변인들이 사회적 능력을 설명하는 정도는 5%였는데, 2단계에서 어머니 표상을 추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해 보니,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변량이 8%로 유의하게 나타났다($\Delta F=40.45$, $p<.001$). 따라서 어머니에 대한 표상은 아동 개인변인과 상관없이 직접

표 6.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아동 개인적 변인, 어머니 표상과 또래 표상의 위계적 회귀분석 (N=547)

변인(주)	R ²	F	ΔR ²	ΔF	β	t
<u>1단계</u>	.05	3.87***	.05	3.87***		
성별					-.08	-1.71
학년					.00	.07
형제유무					-.09	-1.98*
모의 직업유무					-.03	-.59
어머니학력					.11	2.11*
아버지학력					.03	.49
가정 월소득					.12	2.50*
<u>2단계</u>	.13	8.72***	.08	40.45***		
성별					-.07	-1.63
학년					.07	1.52
형제유무					-.05	-1.20
모의 직업유무					-.02	-.40
어머니학력					.11	2.13*
아버지학력					.04	.79
가정 월소득					.10	2.32*
어머니표상					.28	6.36***
<u>3단계</u>	.29	21.91***	.16	111.51***		
성별					-.00	-.07
학년					.03	.84
형제유무					-.04	-1.12
모의 직업유무					-.04	-.99
어머니학력					.09	2.04*
아버지학력					.04	.96
가정 월소득					.11	2.71**
어머니표상					.07	1.53
또래표상					.46	10.56***

주. 변인 속성에 따라 성별(남: 1, 여: 0), 형제유무(있음: 1, 없음: 0), 모의 직업유무(있음: 1, 없음: 0), 어머니학력과 아버지학력(대학교 이상: 1, 고졸 이하: 0)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였고, 학년과 가정 월소득은 서열변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년이 높거나 소득이 높음

* $p < .05$ ** $p < .01$ *** $p < .001$

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즉, 아동이 어머니에 대해 보 호적이고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하고 있을수록

사회적 능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표 6에 투입된 개인적 변인과 어머니 표상

변인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설명하는 전체 설명력은 1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 개인변인과 어머니 표상의 영향을 제거하고서도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또래표상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는 표 6의 2, 3단계의 결과에 제시된 것과 같다.

구체적으로 2단계에 투입된 아동의 개인변인들과 어머니 표상이 사회적 능력을 설명하는 정도는 13%였는데, 3단계에서 또래 표상을 추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해 보니,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변량이 16%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F=111.51, p<.001$). 따라서 또래에 대한 표상은 아동 개인변인이나 어머니 표상과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즉, 아동이 또래에 대해 친밀하고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하고 있을 수록 사회적 능력에 또한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단계에서 독립적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던 어머니 표상은 마지막 3단계에서 또래 표상이 투입됨으로써 그 독립적 영향력이 사라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어머니 표상보다 또래 표상의 영향이 훨씬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6에 투입된 개인적 변인, 어머니 표상 및 또래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설명하는 전체 설명력은 29%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내적 변인으로서 어머니 표상과 또래 표상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로서 첫째,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또래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아동의 개인적 변인, 어머니 표상 및 또래 표상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로 설정하였고 이들 연구문제에서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표상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예측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어머니는 아동이 경험하는 최초의 사회화 환경으로써 아동은 어머니의 돌봄을 통해 정서를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 가치 등을 획득한다. 즉 아동은 어머니의 지지적인 반응을 토대로 타인과 자신의 욕구에 대해 배우고 정서를 조절하며(Eisenberg & Fabes, 1994; Garner, Jones & Miner, 1994), 이런 양육적인 환경은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성, 자기신뢰, 안정된 애착, 그리고 긍정적인 표상을 촉진시킨다(Davies & Cumming, 1994). 이와 같이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안정된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어머니 표상이 형성될 때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발달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또래 표상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예측변인임이 확인되었다. 또래 표상은 어머니 양육에서 비롯된 어머니 표상의 영향력에 현실의 대인관계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더해져 형성된다(김영아, 2000) 즉 어머니 표상의 바탕위에서 발달시킨 또래표상은 대인관계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외부현실에 잘 조율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겠다.

셋째, 어머니 표상과 또래 표상은 아동 개인변인과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의 개인적 변인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형제가 없는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높고 가정의 월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는데 이러한 개인적 변인을 제거하더라도 어머니 표상이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의 개인적 변인과 어머니 표상의 영향력을 제거하고서라도 또래 표상은 직접적으로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또래 표상이 투입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주요 예측변인이었던 어머니 표상의 영향력이 사라짐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서는 어머니 표상보다 또래 표상이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기 아동기의 특성을 감안할 때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개입이 줄어들면서 또래와의 관계에 더 비중을 두는 시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즉,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표상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넘어서 보다 넓은 사회적 관계로 확대되어 대인 관계에 대한 표상으로 일반화되는데(Ainsworth, 1989; Bowlby, 1973; Sroufe & Fleeson, 1986), 중기 아동기에는 어머니 표상을 바탕으로 또래 관계의 경험이 증가하면서 또래 표상이 발달하고(정명진, 2006) 이는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매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결과나 초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발달한 정신적 표상이 모든 인지적 정서적 노력의 기초가 되며(Blatt, Quinlan, Schaffer & Wein, 1998), 통합된 표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대인관계는 안정되고, 자율적이며 타인과의 차이를 인지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보고(박란희, 2003)들을 통해 볼 때 아동의 대인 표상은 확장된 대인관계와 사회

적 능력의 심리 내적 바탕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상 언급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예측변인으로서 어머니 표상과 또래 표상의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바람직한 양육환경에 대한 부모교육과 아동상담 시 부모상담의 필요성을 확인해 준 점, 또한 중기 아동기의 학생들이 긍정적 또래표상을 발달시킬 수 있는 사회성 프로그램이나 부정적 또래 표상을 중재할 수 있는 예방적 상담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해 준 점에서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인천의 수도권 일부 초등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에 따른 표집오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를 대한민국 전체 아동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따른다.

둘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 및 또래 표상의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고학년에 국한함으로써 발달적 시기에 따른 표상의 일관성이나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개인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표상이 어떠한 양상과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종단적 연구나 연구대상을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집단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통합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또래 표상의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이후에는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긍정적 또래 표상을 위한 개입과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 정도를 밝히는 연구가 이어져

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인숙 (2004). 아동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과의 상관.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병석 (1999). 관계문제로서의 정서행동장애: 대 상관계이론적 접근. 특수교육학연구 34(2), 257-275.
- 김숙경 (1989). 외동아와 형제아의 모-자녀 관계 및 사회성에 관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아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에 대한 대인표상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영지 (1994). 어머니에 대한 아동 애착과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나유미 (2001).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또래 관계 간의 연계: 인지 표상 모델의 매개 역할. 아동 학회지, 22(1), 83-96.
- 박금옥 (1998). 청소년들의 자기조정학습방략 정도와 학업성취 및 사회적 능력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란희 (2003). 어머니 표상의 복잡성 및 사회적 인과수준과 발달장애 자녀의 정신적 표상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범실 (1986).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그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심윤정 (2000).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 어머니의 대상관계 수준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영미, 이영 (2001).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표상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63-74.
- 이기영, 고윤희, 최성열 (2004). 유아의 애착표상과 또래관계. 아동교육, 13(2), 303-313.
- 이병림 (1987).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지각.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영환, 이진숙 (2001).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표상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이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33, 69-91.
- 이종구 (2001). SAS와 통계자료 분석. 학지사.
- 이희선 (1998). 어머니가 인식한 아동의 개인 사회적 발달이론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18(2), 85-98.
- 임경례 (2003).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정하 (1996).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경란 (1990). 아동이 지각한 형제관계의 질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전경아, 이진숙 (2003). 유아의 또래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가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2(5), 659-668.
- 정명진 (2006). 어머니 표상 및 또래 표상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영숙 (1992).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사

- 회적 역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송미 (2003). 한국대학생의 사회적 유능성의 구성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용주 (1993). 학령기 아도의 친구관계에 따른 대체지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기복 (2005).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insworth, M. D.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Blatt, S. J., Chevron, E. S., Quinlan, D. M., Schaffer, C. E., & Wein, S. (1998). *The assessment of qualitative and structural dimensions of object representation*(Rev. Ed). New Haven: Yale University.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Cashdan, C. (1988). *Object Relation Therapy*. New York: Norton.
- Cohn, D. A. (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Burks, V., Dodge, K., Price, J., & Laird, R. (1999). Internal representational models of peer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roblematic behavior. *Development Psychology*, 35, 802-810.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 74-101.
- Davies, P. T., & Cumming,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138-156.
- Fabes, R. A., Eisenberg, N., Karbon, M., Bernzweig, J., Speer, A. L., & Carlo, G. (1994). Socialization of children's emotional responding and prosocial behavior: Relations with mothers' perceptions of children's emotional reactiv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0, 44-55.
- Falbo, T. & Polit, D. F. (1987). An only child and personality development: A Quantitativ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309-325.
- Ford, M. E. (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23-340.
- Garner, P. W., Jones, D. C., & Miner, J. L. (1994). Social competence among low-income preschooler: Emotion's socialization practices and social cognitive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65, 622-637.
- Mather, A. S., & Rutherford (1996). Is social skills training effective for students with emotional or behavioral disorders? research issues and needs. *Behavioral Disorders*, 22, 21-28
- Page, T., & Bretherton, I. (2001). Mother and father-child attachment themes as represented in the story completions of preschoolers in postdivorce families: Linkages with teacher

- rating of social competence.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3, 1-29.
- Rudolph, K. D., Hammen, C., & Burge, D. (199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maternal, peer, and self representations in school-age children*. Manuscript in preparation.
- Stroufe, L. A., & Fleeson, J. (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W. Hartup & Z. Rubin(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pp. 35-54), Hillsdale. NJ: Erlbaum.
- 1 차원고접수 : 2006. 01. 22.
수정원고접수 : 2006. 02. 27.
최종게재결정 : 2006. 03. 06.

The influence of personal variables, mother representation and peer representation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Myung-Jin Jung

Hanbit welfare center

Kwang-Woong Ki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You-Jin Cho

Institute for cultural
integration of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s of personal variables, mother representation and peer representation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Subjects were 547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 in Seoul and Incheon. Data were analyzed by simple regress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ther representations influenced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Second, peer representations influenced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ird, mother and peer representations, removing influences of personal variables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fluenced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dependently.

Key words : mother representation, peer representation, social competence